

시인, 선승으로서 경허 귀적 쫓아



경허 일지 저자 민족사 펴냄 1만3천원

“선함과 악함이 부처와 호랑이보다 더하신 분 / 바로 경허선사이다 / 돌아가셨으니 어느 곳을 향해 떠나셨는가 / 숲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 (만공 월면)”

만공 스님이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듣고 (경허법사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을 듣고(聞鏡虛法師變化吟)라는 시를 읊었다. 만공 스님이 써 내려간 시에서 ‘숲에 취하여 꽃밭 속에 누우셨도다’는 구절에는 제자 만공이 파악한 스승 경허의 고독했던 일생을 함축하고 있다. 숲은 세속의 숲이 아니다. 꽃밭은 세속의 꽃밭이 아니다. 경허 스님의 숲은 자신을 이류중행(異類中行, 중생 속으로 들어가다)에 몰아넣기 위한 미망의 숲이며, 꽃밭은 경허 스님 자신이 선택한 가시밭이다. 경허 스님은 삼수 갑산에서 쓸쓸히 입적했다. 당시 경허 스님의 저고리 속에는 다음의 게송이 들어 있었다.

“삼수갑산 깊은 골에/ 속인도 아니요 중도 아닌 송경허라/천리 고향 인연이 없어 /세상 떠난 슬픈 소식은 흰 구름에 부치노라”
경허선사가 열반한지 100년이 되었다.

곳곳에서는 선사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경허 스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느닷없이 제자와 길을 가다가 아낙에게 입맞춤을 하고 줄행랑을 치고, 술이 좋아 매일 같이 술을 마시는, 승려의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비도(非道)적인 모습이고 그의 전부일까? 지금까지 우리는 마치 불결한 피가 흐르는 한 선조의 존재를 감추려는

한국불교의 전통 복원한 선승

체류지 답사 통해 禪세계 조명

후손들처럼 쉬쉬하며 경허스님의 삶과 선(禪)을 물어버리려 했다. 그러나 경허 스님의 존재는 거대해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아직도 한국불교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다. 현재 한국선이 경허 스님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에도 정작 경허 스님은 막행막시의 기행을 일삼은 파계승, 선문의 이단자로 외면당하고 있다.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미치광이’ 쯤으로 여기는 이도 있다.

경허 스님은 봉건적 잔재를 깨부수고 오염된 조선불교를 깨끗이 씻어냈다. 경허 스님을 통해 한국불교는 다시 생성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허 스님 문하에서 배출된 고승들이 주도한 1954년 이후 불교정화 운동에 의해 현대 한국불교가 그 목소리를 가진 것을 생각해보면, 한국불교는 경허 스님의 압도적인 영향 아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경허 스님은 잿밥에만 골몰하며 목탁을 두드리던 구한말 불교계에 선의 정신과 선종교단으로서 한국불교가 지녀야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구전된 이야기들은 선사로서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때로는 엉뚱하기조차 하다.

이 책은 현대 한국선의 탐마, 경허에 관한 필자의 오랜 그리고 절실한 사랑의 기록이다. 저자는 이 평전을 쓰기 위해서 수년간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의 체류지를 답사했다. 또한 경허선(鏡虛禪)의 세계를 축약해 전하는 1943년판 원본 (경허집(鏡虛集))을 몇 번이고 숙고하며 읽었다.

특히 저자는 경허의 길을 추적했으며, 왜 경허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에서 방랑자로 쓸쓸히 소멸했는지 변호하고자 노력했다.

경허는 무너져 가는 조선을 걱정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누어도 편치 않구나’ 라고 노래한 우국(憂國)의 선승이었다.

경허는 한국선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 (Prometheus)이기도 했다. 그리고 경허는 실종자이기도 하다. 경허의 실종과 불귀(不歸)는 망국(亡國)의 조선, 식민지 대한제국의 공간과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너무나 조선적인 비극이 응축되어 있다.

경허의 생애가 후대에 전해지고 검토되는 기준에는 구전(口傳)으로 전해지는 전

경허의 실종과 불귀 조선비극 응축

기행 일삼은 이단자 오명 변호 노력

승과 기록으로 전해지는 전기(傳記)가 있다. 기록으로 남겨진 전기는 연대(年代)와 그 인물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장치가 갖추어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구전된 이야기들은 선사로서의 엄숙함은 찾아볼 수 없고 때로는 엉뚱하기조차 하다.

이 책은 현대 한국선의 탐마, 경허에 관한 필자의 오랜 그리고 절실한 사랑의 기록이다. 저자는 이 평전을 쓰기 위해서 수년간 인간 경허, 시인 경허, 선승 경허의 체류지를 답사했다. 또한 경허선(鏡虛禪)의 세계를 축약해 전하는 1943년판 원본 (경허집(鏡虛集))을 몇 번이고 숙고하며 읽었다.

특히 저자는 경허의 길을 추적했으며, 왜 경허 스스로 이단자라는 운명을 감수하고 저 북방고원에서 방랑자로 쓸쓸히 소멸했는지 변호하고자 노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자르고 버리면 모든 것 가지런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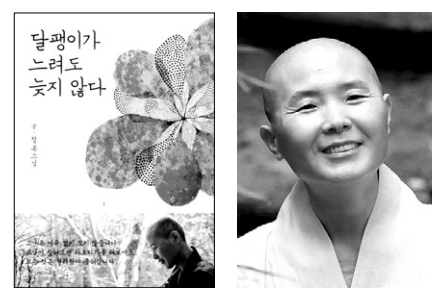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스님 저 | 공감 펴냄 | 1만4천원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듣는 음악’에 정목입니다.”

주말 저녁 FM 불교방송.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음성이 귓가에 내려앉는가 싶더니 마음에 젖어든다. 어머니 손길 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스한 음성에 먼저 반하고, 두고두고 가슴에 남는 말씀의 내용에 다시 반한다.

그렇게 스님의 팬이 된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유나방송’과 스님이 주지로 있는 정각사 법회에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트위터에 올라오는 스님의 글에 다시 매료된다. 이 책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 싶



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비롯한 스물두 편의 에세이로 이루어져 있다.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에서는 장 루슬로의 시를 소재로, 우리의 욕망을 돌아보고,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들려준다. 이 밖에도 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틀에 맞춰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세상의 기본’, 고양이 이야기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오해에서 벗어나는 법을 들려주는 ‘꼬리의 미학’ 등 에세이마다 수십 년간의 봉사 활동과 상담을 통해 상처 입은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해 온 스님의 경험과 지혜가 넉넉히 녹아들어 있다.

정목 스님 트위터 글 한데 묶어

특유의 맑음, 서정성 향수 불러

22편의 에세이...마음 평화 전해

상처입은 이들에게 글로 위로

의 의미를 되찾게 하는 글과 말씀에 의해 저절로 한 권의 책으로 묶여져 나오게 되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만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자유롭지 못한 현대인에게 스님의 말씀은 때로는 자상한 어머니의 음성처럼, 때로는 세상 먼지에 찌든 심신을 깨워놓는 죽비소리처럼 청정하게 울려 퍼진다. 뿐만 아니라, 아침에 핀 나팔꽃이나 채송화 같이 맑은 비구니 스님 특유의 깨끗한 서정은 잊고 있던 동심을 일깨우며 우리 마음에 아련한 향수를 불러오기도 한다.

책은 ‘처음 만난 별에서’ ‘세상에 꽃이 필 때’ ‘내 마음의 리모컨’,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음 만난 별에서’는 서문을 대신해 책 전체의 주제가 될 만큼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 투명한 언어로 들려주는 삶과 죽음, 존재에 대한 각성은 낯선 것을 친근하게, 익숙한 것을 새롭게 들여다보게 만드는 커다란 힘이 있다.

“품위 위 죽은 잠자리/살아서도 가법고/죽어서도 가법네.

살아서도 아름답고/죽어서도 아름답네. 악취도 없고/땅을 더럽히지도 않네.

사람의 시신도/저렇듯/가법고 아름다울 순 없을까?” (처음만난 별에서 중에서)

‘세상에 꽃이 필 때’는 표제작 ‘달팽이

‘내 마음의 리모컨’은 감사, 고통, 분노, 사랑, 성장, 자비, 집착, 화해, 건강, 평화, 행복 등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제 따라 나뉘지며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실질적인 방법들이 소개된다.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지, 집착과 미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짧지만 마음을 울리는 경우와 일화 중심의 이야기는 유익하며 흥미롭다.

마지막으로 정목 스님은 말한다. “나를 소모시키는 일은 하지 마세요. 자르고 버리고 하다보면 모든 것이 가지런해집니다. 인생 그 자체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의미는 나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라고.

김주일 기자

정목스님 약력

1976년 출간한 정목 스님은 1990년 불교 방송 개국과 함께 ‘첫 비구니 MC’로 활동했다.

이후 1991년 한국방송대상 사회상을 수상, 1992년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진행자상을 수상했다. 1995년부터는 아른 아른이 돕기 운동 ‘작은 사랑’을 시작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또한 2004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불교방송 FM ‘마음으로 듣는 음악’을 진행중이다.

2006년 2월부터는 현대인들에게 명상을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2007년 인터넷 사이트 유나방송 (una.or.kr)을 개국했으며, 현재 34개국 4만5천 회원들에게 마음공부의 길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는 정각사 주지로 있다.

무상, 마조, 구산선문 발자취 소개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정문 저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8천원



무상 대사는 신라 때 왕자로서 44세에 당나라에 들어가 그곳에서 입적한 선사이다. 무상 대사에 관해 표출되지 않은 점이 있다면, 무상이 왕실에서의 보이지 않는 암투와 절망에 매우 힘들었을 것이다. 무상 대사가 느낀 인간에 대한 비애와 무상함이 일반 평민보다 뼈저리게 절실했던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을 구하고자 하는 구도심은 상대적으로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저자는 왜 무상 스님이 고

귀한 신분으로 태어나 세속 나이로도 적지 않은 40대에 타국에 들어가 이국땅에 유골을 묻어야 했는지 저자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화두였다.

이 책서 소개된 또 하나의 선지식 마조 도일은 당나라 최고의 선사이자 조사선의 개조라 칭한다.

한국불교와도 연관이 깊다. 조계종의 근원이 되는 나말여초의 구산선문 가운데 7산문과 못 승려들이 마조계 법을 받아와 신라 땅 곳곳에 산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무상 대사와 나말여초의 구법승들 사이에는 시공간을 초월한 끈을 수 없는 한국인의 연이 맞닿아 있다.

이 책 구성은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는 무상 대사와 마조 스님의 행적지 순례이고, 2부는 구산선문 사찰 순례이다.

김주일 기자

산에서 맺은 인연들이 내 평생 멘토

내 가슴에 묻은 별

엄홍길 저 | 중앙북스 펴냄 | 1만2800원



엄홍길 대장은 이 책을 통해 2010년 히말라야 안나푸르나(해발 8091m) 남벽에 코리안 루트를 내기 위해 올랐다가 실종된 박영석 대장과의 인연을 책에서 처음 공개한다. 저자는 박영석 대장은 오랫동안 그와 함께 같은 길을 걸은 동료이자 사랑하는 후배였음을 전한다. 1989년 겨울 내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박영석 대장을 처음 만난 순간, 박영석 대장이 랑탕리 등정에 성공하기까지 일주일 동안 숙

식을 함께 하며 지낸 특별한 추억, 1992년 여름 엄홍길 대장이 낭가파르바트(해발 8126m)에 도전하다 오른쪽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일부를 잘라냈을 때 겪었던 큰 좌절을 박영석 대장이 위로하며 용기를 북돋워준 이야기까지. 때론 친형제처럼, 때론 돌도 없는 등반 파트너로 지냈던 산사나이들의 우정과 의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다.

또한 함께 산을 오르다 목숨을 잃은 여성 산악인 지현옥, 그의 소중한 후배이자 분신으로 여긴 박무택, 동상으로 잃은 엄지 발가락만큼 아픈 후배 박병태 등 엄홍길 대장의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야기도 소개했다.

이 책에는 엄홍길 대장 인생에서 많은 도움과 사랑, 힘을 준 또 다른 멘토들의 이야기도 실려 있다.

김주일 기자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춤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계, 다계, 향화계, 오공양, 음납, 기경이, 범고
- 사 물 : 법당복,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통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의처 : 강주 흥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국사
- 주 소 : 경남 의령시 의령읍 하리 840번지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2일

대한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법하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신지식 서비스기업 대상

무료 공개체험
5월 5일 1시~2시
선착순 15명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강 의 : 5월 6일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 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 종합반 : (1)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 특 헤 : (1)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 說法 研修院

서울시 중로구 중로3가 16번지 교영빌딩 7층 / 13.5호선 중로 37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